

제73회 유엔의 날
특 별 기 고

빈센트 커티니

‘텐투워드부산’ 행사 제안자
전 캐나다 참전용사협회장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나는 한국에서 ‘캐나다 참전 기념동상’ 건립 작업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보다 2년 앞서 한국어 통역 등을 도와준 막예를 만나 결국 결혼까지 했다.

현재 유엔기념공원과 캐나다 오타와에 세워진 캐나다 참전기념 동상은 나와 한국인 아내가 3년에 걸쳐 작업에 매진한 끝에 완성됐다. 이 동상은 한국전쟁에서 숨져간 캐나다 용사들의 것으로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이 목숨 걸고 싸운 것을 기리는 작은 헌정물이다. 이제 이 글을 통해 내가 이 기념물을 왜 유엔기념공원에 세웠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나는 한국전쟁 이후 한국을 다시 방문하는 게 두려웠다. 젊었을 때는 여행경비가 부담이 됐지만 이후 저널리스트가 되고, 기업 임원과 컨설턴트로 생활하며 경제적 여유가 생겼어도 여전히 방문하기가 두려웠다. 전쟁의 최전선에서 싸운 때는 누구나 신에게 기도한다. 다른 수많은 젊은 병사들이 그러하듯 나 역시 하루하루를 살아

남을 수 있을지를 걱정했다. 만일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다시는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으리라 맹세했다.

나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여긴다. 고향 캐나다로 무사히 돌아온 것에 대해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다.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민 와 40년을 살면서 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스무 해 전 사업을 조금씩 줄여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었다. 프랑스 출장에서 돌아온 직후 한국 방문을 결행했고 당시 내 마음은 선의와 행복으로 충만했다.

유엔기념공원에는 12명의 전우들이 잠들어 있다. 이곳을 처음 찾았을 때 묘지의 철저한 황량함, 외로움, 공허함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서리와 차가운 안개가 뒤덮인 채 하늘은 잿빛이었다. 준비 없이 방문한 탓에 나는 전우들의 묘비를 찾아 한참을 헤매야 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전투현장에서 전사했기에 함께 묻혀 있었다. 마침내 그들의 묘비를 발견하고는 나는 거의 깨부러질 뻔했다. 땅위에 평평하게 놓은 작은 동판에는 성은 빼먹은 채, 이름 이니셜과 군번, 계급, 나이, 사망날짜만 새겨져 있었다. 나 외에 이들을 보러 캐나다에서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전우들이 이곳에서 쓸쓸히 50년이나 잠들어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찔렀다. 공원에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몇 주 전 파리 상젤리제의 클라리지 호텔에서 산 고가의 부츠와 잘 재단된 양복, 코트 그리고 한국 지폐와 여행자 수표로 투툼한 지갑이 주는 허세는 그곳에서 무의미했다. 내가 살아오면서 얻은 부와 자유, 행복을 생각하면 수치심과 함께 공허감

이 밀려왔다.

나는 수십 년 간 아주 멋진 삶을 살았고 많은 성공을 거두었다. 목표를 향해 뛰었고 그 대가를 마음껏 누렸다. 하지만 이 묘지에 잠든 친구들은 어떠한가. 서리 내린 땅 위의 얼음같이 차가운 동판에 고작 이름 한 줄 새겨져 있을 뿐이다. 눈물이 떨어졌다. 용감한 영혼들의 그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이 슬펐다. 이때 나는 이 젊은 캐나다 군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알아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들이 살아있었다면 한국의 이 쓸쓸한 묘지에 묻혀있는 것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았을 어린 소년들이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나는 그날 간소한 묘지가 실제로 더 적막하고 슬프게 느껴졌던 이유를 알고 있다. 전사자들은 전선에서 후방으로 배로 운반된 뒤 다시 트럭 집안에 실려 묘지에 도착했다. 그리고는 텐트 전에 싸여 노란 통신선으로 묶였다. 그리고 청동으로 만들어진 작은 장례식용 병이 함께 묻혔다. 처음엔 하얀색 나무십자가와 다윗의 별 기호로 묘지를 표시했지만 수십 년이 지나 풍으로 된 명판으로 대체되었다.

나는 캐나다 전통용사상의 아주 상세한 부분까지 모든 기초적인 사항을 설계했고 나의 좋은 친구인 유영문 조각가가 그것들을 멋진 3차원 석고반죽으로 재현해냈다. 그리고는 장인들이 청동원료를 섞고 각 부분들을 융합하는 걸 지휘·감독했다. 화강암으로 된 커다란 주춧돌을 직접 손으로 조각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쳤고, 유엔 기념공원 캐나다 묘역의 주춧돌에 각 청동

부분을 조립하는 것도 도맡았다. 나와 유작가는 DMZ 인근 포전지의 작은 작업실에서 함께 작업했다. 우리는 전물자들과 한국인들 그리고 공원 방문객들에게 기념 동상을 보여줄 수 있다는 영광스러운 마음 외에는 어떤 대가도 기대하지 않고 일했다.

기념동상 건립 프로젝트를 위해 아내와 함께 한국에 갔을 당시에 나의 건강은 아주 나쁜 상태였다. 디트로이트에서 큰 수술을 앞두고 있어 최우선적으로 더 한국을 방문할 결심을 했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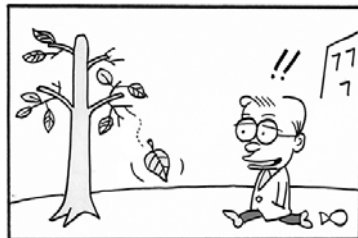
작업은 6개월 만에 끝날 거라 예상했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3년 가까이 끌렸다. 나는 2년 이상 특별식이요법을 하고 있어 서울의 미군병원 응급센터를 계속해서 다녀야 했다. 2001년 11월 11일, 마침내 캐나다 참전 기념동상이 유엔기념공원에 세워졌고 그 직후 나는 아내에 이끌려 용산의 미군병원으로 옮겨져 큰 수술을 받았다.

나는 거의 죽을 뻔 했다. 아내는 내가 입원하고 퇴원할 때까지 6주 동안 밤낮으로 내 곁을 지켰다. 그 후 나는 집중치료센터에서 치료를 계속해야 했고 침대에서 몸을 뒤집기조차 힘들 만큼 상태가 악화됐다. 아내, 막에는 항상 내 곁을 지켜줬고 이듬해 봄이 되어서야 우리는 캐나다로 돌아갈 수 있었다. 캐나다 총리는 한국에서

의 내 임직을 인정해 나에게 메달을 수여했다.

유엔기념공원
캐나다 참전
기념동상신선대
채 규홍

<273>



임진강 유역 일명 ‘후크고지’에서 빈센트 커티니(오른쪽) 씨가 동료 스텐리 머드 이병과 찍은 사진. 머드 이병은 사진 촬영 며칠 뒤 야간정찰 도중 전사했다.

열여섯에 6.25 참전
‘텐투워드부산’ 제안

■ 빈센트 커티니는 누구

빈센트 커티니(Vincent Courtney) 씨는 캐나다 출신으로 열여섯 살인 1950년 11월 한국전에 참전, 1953년까지 복무했다. 1951년 4월 중공군에 맞선 경기도 가평지구 전투로 트루먼 대통령으로부터 부대표장을 비롯해 여러 훈장을 받았다.

대학 진학 후 미국으로 옮겨 신문기자 생활을 한 뒤 대기업 임원을 지냈다. 1998년 지금의 한국인 부인 막에 커티니 씨와 결혼했다.

은퇴 후 캐나다 한국전 참전용사협회장을 맡았고 한국전 참전 캐나다 전통용사들을 추모하기 위해 캐나다 기념동상을 만들어 2001년 11월 11일 유엔기념공원에 기증했다. 2년 뒤인 2003년 10월 기념동상 하나를 더 제작해 캐나다 오타와에도 설치했다.

텐투워드부산 행사 첫 제안자로 잘 알려져 있다. 2007년 11월 11일 11시 전 세계가 유엔기념공원 전물자들을 향해 1분간 묵념하는 행사를 가진 뒤 올해 12회제가 열린다. 2014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국민훈장을 받았다.

■ 독자에세이

마음을 움직이는 말의 기술



박 근 아

HR에듀니우 대표·부산경상대 겸임교수

‘물’에서 시작한다. 이 세상 모든 말의 어원의 출발점은 물에 있다. ‘물’과 ‘말’은 발음에서부터 묘하게 닮아있다.

스피치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스승님은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노자의 도덕경 8장에 보면 상선약수(上善若水)란 말이 있다.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 좋은 것은 물과 같다’란 뜻이다. 물은 모든 생명체의 원천이다.

노자는 ‘사람들은 물을 이고 산다’고 표현했다. 하늘에 있는 물은 바람 따라 흐르다가 구름이 되고 때가 되면 물방울이 맺혀 땅에 떨어지면 대지를 적서 모든 동식물의 생명에 에너지가 된다. 이후 바다로 흘러가 기화했다 다시 하늘에서 흘러 땅으로 떨어지는 무한 반복을 하게 된다. 말도 이런 물과 같아야 한다 는 것이다

이처럼 말에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스피치는 단순한 소리가 아닌 ‘혼을 담은 소리’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혼을 속성’시켜야 한다. ‘읽은 자를 당하지 못 한다’는 옛말이 있다. 말은 재주나 기술이 아니라, 1000년의 책을 한바퀴 읽을 게 아니라 좋은 책 1권을 1000년을 읽게 되면 혼이 숙성되게 된다.

도덕경 1장에 道可道 非常道(란을 도라 함은 이미 도가 아니다)란 철학적인 말로 시작해서 81장 결론 편에 가면 ‘信言不美 美言不信(진실한 말은 아름답지 아니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말은 신뢰성이 없다)’로 끝을 맺는다. 노자가 도덕경에서 주는 화두는 ‘진실하면서도 아름다운 말’이 아닐까. 아름다운 말이란 미더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말의 좌우명이 되어야 한다.

나의 말 한마디가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격려와 응원으로 살아가는 힘이 되어 줄 수도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독점이 되어 상대방 마음에 비수처럼 꽂힐 때가 있다. 진실하면서도 아름답고, 아름다우면서도 미더운 말이야말로 마음의 빗장을 푸는 ‘말의 기술’이 아닐까 한다.

오늘 하루도 나는 아름다운 말 한마디를 상대에게 건네었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한다.

독자의 소리

부산남구신문편집실 ☎ 607-4065, 4075, FAX 607-4374, 1225honey@korea.kr

독자의 소리란은 독자 여러분을 위한 공간입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다



이역만리 스웨덴은 생각보다 가까운 이웃이다. 1953년 7월 정전협정 이후 스위스와 공동으로 판문점에서 남북의 군사충돌을 막는 중립감각감독위원회(NNSC) 활동을 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스웨덴을 찾은 한국인은 5만 명인데 반해 1만7803명의 스웨덴인이 한국을 방문했다. 인구가 우리 5분의 1임을 감안하면 방문객이 한국의 배 수준이다. 그만큼 하면 서방국가 중 유일하게 북한에 대사관을 두고 있어 한반도 해빙 무드에서 그 역할이 어느 때보다 강조된다.

한국과 스웨덴의 이런 끈끈함은 60여 년 전 스웨덴적십자자전병원에서 비롯됐다. 서전(瑞典)병원으로 더 익숙한 이 전신 아전병원은 1950년 9월부터 1957년 4월까지 6년 7개월간 부산의 서면과 남구(옛 수산대)에 주둔하며 유엔군, 국군, 민간인 외에도 중공군, 북한군 등 피아 없이 치료했다. 유엔참전국임에도 북한이 스웨덴에 우호적인 데는 병원이 보여준 박애가 일정한 역할을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정전협정 이후 병원은 서면에서 남구 수산대학으로 옮겨 민간인 구호에 전념했다. 60여 주된 기간 의료진들은 200만 명 이상을 무상 치료했다. 또 민간 의료 자원봉사자들은 부모를 잃은 수많은 아이들을 품어 본국으로 데려갔다. 현재 스웨덴 내 입양 한인 규모는 1만 명을 넘는다. 한국 철수

직후에도 스웨덴은 같은 의료지원국인 노르웨이, 덴마크와 공동으로 서울에 국립중앙의료원을 설립해 보편된 한국의 공공의료체계를 재건하는데 앞장섰다.

그러나 스웨덴병원의 이런 놀라운 이야기는 우리 무관심으로 60년 넘게 까맣게 잊혀 있었다. 두 해 전 필자에 의해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때마침 스웨덴에서 도 스웨덴병원을 다룬 다큐멘터리 ‘Let us not forget’이 제작되고 있다. 한국-스웨덴협회 라스 프리스크(Lars Frisk) 협회장은 2004~2006년 판문점 중립감각감독위원회 스웨덴 대표로 근무하면서 병원에 대해 알게 됐다. 현역 장군인 자신도 몰랐던 이 스토리를 반박 시 스웨덴 국민들에게 알려졌다는 일화에 예견 후 다큐멘터리 제작에 뛰어들었다.

필자가 수소문 끝에 찾은 당시 병원에서 치료받은 한국인 환자들을 인터뷰하러 스웨덴 촬영팀이 지난해 이 무렵 남구를 방문했다. 60년 전 백안의 의료진들로부터 두 번째 삶을 선물 받은 이들은 저 마다의 사연을 떠올리다 눈시울을 붉혔다. 촬영팀에 대신 큰절을 올리는 이가 있는가 하면 값

을 길 없는 은혜’로 혼절해 촬영팀이 가슴을 쓸어내기도 했다. 다큐멘터리가 한국과 스웨덴에서 전파를 타면 ‘후폭풍’은 엄청날 것이다. 터키에 이어 또 다른 ‘형제 국가’의 탄생’도 기대된다. 다큐멘터리는 스웨덴어, 한국어, 영어 3개 버전으로 준비 중이다.

그런데 당초 지난 9월 완성 예정이던 다큐멘터리가 아무 소식도 없다. 10월 부산국제영화제 출품도 무산된데 이어 서울 시사보도에 돌연 취소됐다. 속내를 알아보니 ‘돈’ 때문이다. 말도 있는 인터뷰를 위해 스웨덴-한국 외에 미국, 프랑스 등 현지 로케이션을 가졌 다 한다. 영화 한편 못지않은 제작비가 소요되는데 다큐멘터리는 사실상 프리스크 협회장이 사재를 털어 진행한 모양이다. 다큐방영을 한국-스웨덴 수교 60주년인 내년으로 늦췄지만 장담하기 어렵다.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이다 역사 재건은 기념관, 역사관 건립에 만지 못한다. 고종빈 스토리는 역사가 되고 그 역사는 천년의 생명을 얻는다. 아름다운 이야기는 그 어떤 기념비보다 깊게 마음을 파고드는 법이다. 스웨덴병원은 우리의 역사이자 가야 할 은혜다.

현재 80명 남짓의 생존 의료진들은 평균 90살을 넘겼다. 다큐완성이 늦어지면서 촬영에 참여한 일부가 다큐를 보기 전에 유명을 달리하고 있다. ‘나무는 가만있고 자 해도 바람이 그치지 않는다(樹欲靜而風不止)’는 말이 어찌 우리 부모에게만 국한될까. 은혜를 갚고 싶어도 그들이 가만있지 않는 다. 시간이 없다.

부산남구신문 편집장

산타라 물 따라

산행을 떠나요



<2018. 11.>

구분	산악회	산행일자(요일)	산행장소	연락처
대연동	대삼산악회	11/11(일)	주왕산	010-6252-5641
	한울림산악회	11/11(일)	괴산 옛산막이길	010-9975-8688
	약천산악회	11/21(수)	순창 강천산	010-4655-4370
	백호산악회	11/14(수)	충무 근교	010-5621-4007
	연포산악회	11/11(일)	담양 추월산	010-3832-5971
용호동	자유산악회	11/4(일)	경주 무장산	010-5576-8142
	금강산악회	11/4(일)	정성 백악산	010-3865-9051
	청산산악회	11/4(일)	원주 기차산	010-8008-2087
	해월산악회	11/18(일)	문경 조령산	010-7154-3166
	산이좋아산악회	11/25(일)	문경 주출산	010-9329-3560
용당동	용호산악회	11/1~5	캄보디아	010-6266-8525
	청심산악회	11/25(일)	하동 금오산	010-2736-7553
	용마산악회	11/11(일)	함양 선비길	010-2692-1170
	녹색산악회	11/25(일)	함양 쾌관산	010-7342-3426
	문현2동산악회	11/11(일)	고창 선운사	010-2902-8322
문현동	월부리산악회	11/18(일)	문경 조령산	010-4564-7769
	산부리산악회	11/4(일)	영동 월류봉둘레길	010-4035-3432
	문사산악회	11/11(일)	전안 흑성산	010-8466-8662
	채음산악회	10/28(일)	순창 강천산	010-3621-4007

* 산행일정은 산악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분포문화체육센터 헬스 프로그램

○방문 접수 : 기존회원 ▶매일 17일~20일, 신규회원 ▶매일 21일~선착순 마감 ☎607-3360/3356

대상	요일	시간	참가비	프로그램	대상	요일	시간	참가비
청소년 이상	화~일	06:00~22:00	44,000원	힐링요가	성인	화/목	10시/11시	30,000원
		* 토·일·공휴일 (청소년: 09:00~18:00)	38,000원	필라테스	성인	수/금	10시/11시	40,000원

부산남구신문

1996년 1월 1일 창간

발행처 부산광역시 남구 / 편집주간 김 성 한

48452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남구청 대표전화(051)607-4000 편집실(051)607-4065, 4075 / FAX(051)607-4374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http://www.bsnamgu.go.kr

인쇄처 부산일보사 / 월간 <비밀매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